

# “소아기 ADHD 방치땀 품행장애 등 ‘자살위험’ 6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ADHD 환자 연구결과 발표

게임·알코올 중독 등으로 이어져 방항장애 의심땀 전문의 상담 필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할 확률은 일반 청소년들보다 6배나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3일 ADHD의 날(5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ADHD 환자의 생애주기 별 공존 질환’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를 진단 받았거나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는 소아-청소년-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적대적 방항장애, 자살, 중독장애 등의 공존 질환 동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번 연구는 서울대학교 김봉년 교수

연구팀이 2016년 9월부터 약 1년 6개월 간 전국 4대 권역(서울, 고양, 대구, 제주)의 소아청소년 및 그 부모 4057명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실태 확인을 위해 진행한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13세 미만 초등학교생은 적대적 방항장애(19.87%), ADHD(10.24%), 특정공포증(8.42%) 순으로 정신 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아의 약 20%가 앓고 있는 적대적 방항장애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소아 10명중 4명 가량이 ADHD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ADHD 환자는 유아기에 반복적으로 과잉행동에 대한 제재를 당하며 쌓인 스트레스가 성장과정에서 적대적 방항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김봉년 대외협력이사(서울대학교병원 소아정

소년정신과)는 “적대적 방항장애는 유아기에서 방치된 ADHD의 공존 질환으로 ADHD 선행 치료 없이는 증상 개선이 어렵다”며 “소아기에 ADHD 치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성장과정에서 품행장애와 비행문제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생 자녀에게 적대적 방항장애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방항으로 여기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이 상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ADHD가 청소년 자살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전국 4대 권역의 만 13세 이상 청소년 998명 대상으로 ADHD와 자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ADHD나 적대적 방항장애)로 진단된 청소년이 자살 시행 의도를 가지는 비율은 6.6%로 일반 청소년(1.1%)보다 6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하거나(24.4%) 구체적으로 자살을 계획하는 비율(6.8%) 역시 2배, 3배 가량 높았다.

김 이사는 “ADHD 증상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쌓아온 분노와 고립감, 복수심 등이 청소년기 우울감과 만나면서, 자살과 공격성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치된 ADHD 환자는 성인이 되면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 장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실제로 국내 인터넷게임중독 환자 255명을 3년간 관찰 및 추적한 연구 결과, ADHD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인터넷 게임중독 가능성이 1년 차에서 5배, 2년 차에서는 6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알코올 중독 장애에서도 ADHD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 대비 5~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남용으로 치료를 받는 성인에서는 25%가 ADHD 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산하 IT연구회 한덕현(중앙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간사는 “방치된 ADHD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한 자극에 반응해 다양한 형태의 중독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동 조절이 어렵거나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은 ADHD 증상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ADHD의 빠른 치료를 강조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광동제약 배우 김보라 출연 비타500 CF 제작

광동제약은 배우 김보라를 모델로 한 비타500 신규 CF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젊은층의 모습을 담아 ‘직장인’편과 ‘취업준비생’편 2개 영상으로 제작됐다. 바쁜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비타500을 섭취할 수 있는 비타500을 통해 젊음을 채우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배우 김보라는 CF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쁘게 살아가는 취업준비생의 모습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이세경 기자



배우 김보라를 모델로 한 광동제약 비타500 신규 CF. /이세경 기자

## 셀트리온, R&D에 2888억 투자 ‘업계 1위’

매출 상위 20곳 사업보고서 제출 한미약품>GC녹십자>대웅제약 순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 지난해 연구개발(R&D)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곳은 셀트리온으로 나타났다.

3일 국내 매출 상위 20개 제약·바이오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해 연간 매출의 29.4%인 2888억원을 R&D에 투자했다. 절대적인 투자 규모는 물론 매출액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중 모두 1위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의약품 신약과 합성약품 쪽으로도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이어 한미약품의 R&D 비용이 1929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미약품은 전체 매출의 19.0%를 R&D에 썼다. 한미약품의 경우 별도 매출과 비교하면 R&D 투자 비중이 20.1%로 소폭 올랐다.

GC녹십자는 매출의 10.9%인 1459억원을, 대웅제약은 13.1%인 1231억원

을 R&D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1153억원, 12.1%)과 유한양행(1126억원, 7.4%)도 R&D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

동아에스티의 R&D 비용은 768억원(13.5%)으로 집계됐다. 동아에스티는 금액으로는 7위였으나 매출액 대비 비중은 셀트리온, 한미약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이밖에 일동제약(546억원, 10.9%), 보령제약(333억원, 7.2%), 유나이티드제약(268억원, 12.7%) 순으로 R&D 투자 규모가 컸다. /이세경 기자

## 대웅제약 소화기내과 전문의 150명 한자리

대웅제약은 지난 3월 30~3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알비스 발매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웅제약의 대표품목인 항궐양제 알비스의 발매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소화기내과 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알비스를 비롯한 가스모틴, 넥시움의 우수한 임상결과와 안전성 및 소화기질환의 최신 치료지견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풍렬 교수는 “대웅제약에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복합신약 알비스의 출시 20주년을 축하한다”며 “알비스는



대웅제약은 지난 3월 30~31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알비스 발매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세경 기자

위염부터 역류성 식도염까지 광범위한 치료영역을 장점으로, 지난 20년간 많은 환자들의 질병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약품”이라고 소개했다.

## 이대목동병원

### 10일 재활의학 강좌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는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와 복지의 중심 - 재활의학’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강좌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와



대한재활의학회가 함께 재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강좌는 한수정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가(사진) ▲재활의학 ▲경직관

리 등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평소 재활의학과 경직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

## 면역항암제 ‘MG1124’ 종양억제율 우수

GC녹십자, 美 AACR서 전임상 발표

GC녹십자는 지난달 29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 미국암학회(AACR)’에서 면역항암제 ‘MG1124’의 전임상(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AACR은 미국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매년 약 2만명의 연구자가 모여 암에 관한 기초 및 임상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GC녹십자가 이번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과제인 ‘MG1124’는 폐암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면역항암제이다.

‘MG1124’는 암세포와 면역세포에 동시에 발현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인 ‘CEACAM1’의 기능을 억제시킨다. 이를 통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함으로써 항암 작용을 일으킨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CEACAM1’만을 타겟으로 개발되고 있는 면역항암제는 ‘MG1124’가 유일하다. /이세경 기자



동국제약은 지난달 27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웨라민큐(Q)와 함께하는 ‘나만의 예쁜 도자기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세경 기자

## 동국제약

### 중년여성 도자기 클래스

동국제약은 지난달 27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웨라민큐(Q)와 함께하는 ‘나만의 예쁜 도자기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웨라민큐와 함께하는 원데이 클래스’는 ‘여성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갱년기 증상을 방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이다. 이번 클래스는 서울시 성수동에 위치한 ‘그루의 그릇’ 공방에서 20여명의 사전 신청자들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그라탕기 모형에 점토 시트를 올려 모양을 잡은 후 포도, 깃털 등 문양들을 활용해 자신만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고급스러운 도자기를 완성했다. /이세경 기자

## “환절기 ‘면역력’ 강화... 비타민 챙기세요”

식음료 업계, 비타민C 음료 주목

환절기에 우리 몸은 신체 생리적 불균형 상태가 발생, 면역력이 약해지며 쉽게 피로가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해 감기와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봄은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식음료업계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C 함유 음료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네슬레코리아의 ‘네슬레 에이드’는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했을 뿐만 아니라 무탄산, 무카페인, 무인공색소로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분말형 에이드이다.

고려은단은 비타민C 음료 신제품을 출시했다. 비타민C 허니유자는 영국산 비타민C 1000mg에 유자농축과즙과 국산 벌꿀을 넣어 환절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C를 맛있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